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on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이 성 숙 (Sung-Sook Lee)**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인지 여부와 감정, 친숙도, 이해, 도입, 장애요인, 교육에 관한 인식 수준을 고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4년제 대학도서관 정리 사서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첫째 67.1%의 사서가 RDA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인지 수단은 학교 수업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서들은 RDA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었고,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RDA 자체와 FRAD에 대해 더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사서는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전거와 인코딩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사서들은 RDA 도입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지만, 문항 중 'RDA가 AACR2를 대체한다'는 것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사서는 RDA 도입의 저해요인을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RDA 관련 교육 부족을 높게 인식하였다. 넷째 사서들은 RDA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RDA Toolkit의 사용, RDA 레코드 변경, RDA와 AACR2의 차이, RDA와 MARC 21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RDA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RDA by university library librarians and the level of perception of emotions, familiarity, understanding, introduction, obstacles, and education, and to secure basic data to improve awareness. The data needed for the study were obtained through a survey of 76 librarians in 4-year university libraries. As a result of the survey, 67.1% of librarians had listened to RDA, and school classes were the highest at 51.0% of cognitive means. Second, librarians perceived that they were more positive emotions than negative emotions about RDA, and that they were not familiar with RDA-related principles or concepts. In particular, it was recognized that the RDA itself and FRAD were not more familiar. The librarian recognized that they understood RDA-related principles or concepts at a normal level, and in particular, recognized that they did not further understand the authority and encoding. Third, librarians recognized the introduction of RDA at a slightly higher level than usual, but among the questions, 'RDA replaces AACR2' was recognized at a normal level. The librarian recognized the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of RDA at a higher level than usual, and in particular, the lack of education related to RDA was highly recognized. Fourth, librarians recognized the need for RDA-related education at a high level, especially the use of RDA Toolkit, changes in RDA records, differences between RDA and AACR2, and the need for RDA and MARC21-related educa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plan to improve librarian awareness of RDA was proposed.

키워드: 자원의 기술과 접근, 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Cataloging rules, KCR, AACR, University Librarians' Perception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55-477,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5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 자원의 접근 게이트웨이인 목록은 목록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된다. 목록규칙은 편목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서지통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AACR2의 후속버전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가 2010년 출판되었다. RDA는 AACR2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외부 도메인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웹에서의 접근을 쉽게 하도록 개발되었다.

RDA가 발표된 이후 RDA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제기되었다. 그러나 LC는 2013년 3월부터 RDA를 반영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도서관에서도 RDA를 도입하고 있다. RDA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RDA에 대한 동향 파악, 인식 개선, 교육, 실제적인 테스트 등을 통해, RDA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국 목록규칙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특히 각국은 RDA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과 테스트, 구현 전에 RDA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RDA를 도입할 때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RDA를 인식하는 것이 RDA 도입 여부와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도서관 사서의 RDA 인식 수준 파악은 RDA 관련 교육, 테스트, 구현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RDA

최종본 이전 버전에 대한 번역본을 발표하였고, 2013년 사서직 교육훈련 '최신분류목록동향과정' 중 RDA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고,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또한 RDA는 KCR4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RDA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며, RDA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RDA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백지원, 2016)와 RDA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인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이미화, 2017)가 연구가 있다. 또한 RDA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RDA 자원유형에 초점을 두고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KCR4 적용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미화, 2011)가 있다. 그러나 RDA 전반에 대한 국내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인지 여부와 감정, 친숙도, 이해, 도입, 저해요인, 교육 내용의 인식 수준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 인지 여부와 인지 수단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감정 수준, RDA 원리나 개념에 대한 친숙도 수준과 이해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 도입과 도입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도서관 정리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유효한 설문지 76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의견은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연구 결

과는 RDA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RDA의 특징과 구현

1997년 JSC는 AACR의 미래방향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AACR3의 개발을 착수하였고, 2005년에 이르러 AACR3 초안을 완성하였다. AACR3 초안에 대한 의견 수립 과정에서 AACR2를 FRBR 모델에 맞추는 것은 개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JSC는 AACR3 이름을 RDA로 변경하였다. JSC는 3년이 지난 2008년 RDA의 초안을 완성하였고, AACR2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를 2010년 출판하였다(이미화, 현문수, 2015). RDA는 관계 기술을 통해 저작을 중심으로 한 집중이 가능하고, 문화유산 기관의 자원 기술을 고려하였기에 외부 자원과의 호환성이 높고, 웹상에 목록정보를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AACR2와 비교하여 RDA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RDA는 FRBR, FRAD, FRASAD의 개념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둘째 RDA는 전반적으로 자료의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AACR2는 자원유형별로 장이 구성되지만, RDA는 기술요소별로 되어 있다. 또한 AACR2는 자원유형이 혼재되어 있지만, RDA는 물리적 측면인 매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 내용적 측면인 내용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셋째 RDA는 목록 기능

에 있어 기술과 접근을 분리하지 않고,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목록의 기능인 탐색, 식별, 선정, 획득, 향해, 집중이 가능하다. 넷째 RDA는 표목이라는 말 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경호, 김정현, 2016). 목록 기술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RDA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에 표현된 그대로 기술한다. 둘째 기술과 접근에서 목록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시된다. 셋째 저작의 저자뿐만 아니라 수록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술한다. 넷째 전거데이터 지침을 제공한다. 다섯째 역할에 대한 관계지시어와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이미화, 현문수, 2015).

RDA 발표 당시 전작 AACR2와 마찬가지로 RDA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원이 부족하고, 규칙이 복잡하고, 전자 자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이용자의 정보 발견 행태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박진희, 2009). 또한 Toolkit의 구조와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Mitchell, 2013), Toolkit의 구독료가 비싸고, RDA 구현시 이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LC는 2013년 3월부터 RDA를 전면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RDA 개발에 참여한 주요 국립도서관들도 2013년 상반기부터 신규레코드에 대하여 RDA만을 적용한 목록 레코드를 생산한다고 발표하였다(백지원, 2016). 정리 사서들이 RDA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서들의 RD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Haliru, Sokari, & Bello, 2016).

미국에서 RDA 도입은 처음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미국이 RDA 개발의 중심역할을 한 것과 2010년 6개월 동안 진행된 RDA 테

스트에 기인하다. RDA 개발의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공식 언어로 구현하여, 다른 언어로 RDA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101개 이상의 도서관이 RDA를 도입하였다(윤정옥, 2018).

또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NLI), 호주 RMIT 대학 도서관은 LC가 RDA를 도입한 직후 RDA를 구현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적극적으로 RDA를 구현하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란, 브라질 목록 커뮤니티는 모두 RDA가 자국의 목록 전통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중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국립 도서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RDA가 자국의 목록 전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 연구자들은 모든 비 앵글로 국가 중 가장 많은 RDA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RDA를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상하이 도서관은 서양서에 RDA를 적용하고 있다(Ducheva & Pennington, 2019). 그러나 RDA가 중국 목록 전통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국가 규칙과 RDA에 대한 적용이 RDA를 완전히 채택하는 것보다 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Chong, Dandan, & Dongfeng, 2014).

유럽에서는 LC의 RDA 이행 결정 2년 전인 2011년 EURIG(European RDA Interest Group)를 결성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립도서관들은 이 단체의 회원이며, RDA와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관이 이 그룹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 전체의 RDA 채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RDA의 채택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독일어권 국가들도 RDA의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국립도서관의 주도하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3개국과 도서관 네트워크 간의 RDA 공동 구현을 논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년 Toolkit이 업데이트되고, 독일어권 목록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결정된다. 스위스도 RDA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며,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은 2013년 RDA 구현을 결정하였다. 유럽 국립도서관의 RDA 도입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Ducheva & Pennington, 2019). 유럽 국가들은 각국의 목록 전통에 대한 RDA의 적합성과 이론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RDA의 도입은 국가나 기관마다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 유럽 국립도서관의 RDA 도입 현황

구분	도서관
도입 완료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도입 시작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도입 결정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관심있음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관심없음 / 다른 옵션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 부분 도입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는 2009년 RDA 최종본 이전 버전에 대한 본문 번역본을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 'RDA, 새로운 도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 사서직 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인 '최신분류목록동향과정'에서 RDA에 대해 소개하였고(백지원, 2013), 2019년 이후에도 '최신목록동향'과 '국내목록의 전망논의', '서지정보를 활용한 링크드 데이터' 등에서 RDA를 일부 다루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RDA를 토대로 KCR4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KCR4 개정의 진행 과정을 공유해 왔다. 또한 국내 도서관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부터 RDA를 서양서(도서)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 업데이트본을 번역하여 내부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도 2015년부터 RDA를 외국자료 목록에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RDA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RDA가 공식 발표된 전후, RDA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RDA 구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Sanchez(2010)는 459명의 사서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RDA와 AACR2에 대한 정리 사서들의 감정과 이해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LC는 2010년 7월 RDA가 실제 적용에서 목표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RDA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RDA 규칙의 측면에서, 정

리 사서는 약어 및 라틴어 용어 제거, 3인 기술 규칙 포기, 접근점 수 증가와 같은 규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USA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테스트 후 문헌정보학 대학원 학생들은 RDA가 자료의 유형과 형식을 강조하므로 유연성이 뛰어나고, 디지털 자료의 목록에도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Cronin(2011)은 시카고 대학의 일부 정리 사서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RDA를 선호하며, RDA에 기반한 서지레코드의 사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Young과 Bross(2011)는 다양한 옵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온라인 자료에 대한 MARC 필드(300)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Kent State University의 RDA 테스트 참가자들은 연간물 자료를 FRBR 모델에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McCutcheon, 2011). 이는 정리 사서가 RDA Toolkit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물 목록 작성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블루레이 디스크와 동영상 스트리밍 편목 작업에 각각 5시간, 음원 자료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Primary Research Group(2013)은 대학도서관 목록 작성의 관행을 연구하면서, RDA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유럽 사서의 인식을 연구한 Ducheva와 Pennington(2019)은 문헌을 분석하고 12개의 유럽 국립 도서관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유럽 전역의 RDA 적용 상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기관들이 직면한 문제와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RDA를 구현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관점을 발견하였다. 유럽 기관들은 RDA 구현에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였고, RDA가 가진 상호운용성과 문화유산 분야와의 협력에 북미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Mansor와 Ramdzan(2014)은 말레이시아 Klang Valley 지역의 대학도서관 정리 사서를 대상으로 RDA의 인식과 친숙도,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Pazooki와 Zeinolabedini, Arastoopoor(2014)는 이란 도서관 정리 사서의 RDA 교육 전후 RDA에 대한 친숙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교육 후 스스로 느끼는 식별력과 실제 익숙도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석사학위를 가진 정리 사서가 학사학위를 가진 정리 사서보다 RDA에 대한 친숙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터키 도서관 사서의 RDA 인식과 기대를 조사한 Atilgan과 Ozel, Chakmak(2015)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RDA 어휘와 요소 집합,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응답자 중 48.7%가 RDA 구현 과정이 그들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Haliru와 Sokari, Bello(2016)는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RDA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26개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서들은 RDA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서관의 의사결정자는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사서들이 RD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탐구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Oni와 Oshiotse, Abubakar(2018)도 RDA에 대한 나이지리아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Bauchi State의 주립 대학도서관 정리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Southwest Nigeria 사서의 인식을 연구한 Aboyade와 Eluwole(2018)는 사서들이 RDA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열정적이

지만, 예산 문제, ICT 환경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RDA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며, RDA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RDA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백지원(2016)과 이미화(2017)의 연구가 있다. 백지원(2016)은 RDA 교과과정 설계를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고, 현 교육체계의 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 적용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미화(2017)는 RDA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인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RDA 자원유형 테스트 및 선호도에 대한 학부생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RDA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이미화(2011)의 연구가 있다. 이미화(2011)는 RDA의 자원유형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사례조사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RDA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자원유형 기술 현황과 문제점, 이해정도를 조사하고 자원유형의 KCR4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볼 때, 각국은 자국 사서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RDA의 도서관 도입 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RDA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RDA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RDA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지 수단을 조사하였다. 또한 RDA에 대한 사서의 감정과 친숙도, 이해, 도입, 도입 저해요인, 교육 내용의 인식 수준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추가 의견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학술정보통계시스템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기관과의 통화를 시도하였고, 정립업무를 맡고 있거나 정립업무 경력이 있는 사서 111명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였다. 설문은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 주소를 보내어 KSDC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111명 중 80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72%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데이터를 제외한 7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이 연구와 유사한 논문(Sanchez, 2010; Mansor & Ramdzan, 2014; Haliru, Sokari, & Bello, 2016; Aboyade & Eluwole, 2018)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표 2〉 참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소속 도서관의 정립업무 일반 현황, RDA 도입 계획, RDA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RDA에 대한 감정, 친숙도, 이해의 인식 수준, RDA의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 RDA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문항의 평가 척도는 리커트형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26을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는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구성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정립업무 근무연수, 직급, 최종 학력, 고용형태, 소속대학 유형, 대학 규모, 대학 소재지	8	
정립업무 일반 현황과 RDA 도입 계획	서양서의 목록규칙과 포맷 정립업무 아웃소싱 현황 RDA 도입 계획	2 1 1	
RDA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RDA 인지 여부 RDA 인지 경로	1 1	Mansor & Ramdzan(2014); Aboyade & Eluwole(2018)
RDA에 대한 감정, 친숙도, 이해의 인식	RDA에 대한 긍정 감정 RDA에 대한 부정 감정 RDA 원리나 개념 친숙도 RDA 원리나 개념 이해	5 4 9 9	Sanchez(2010); Mansor & Ramdzan(2014); Haliru, Sokari, & Bello(2016); Aboyade & Eluwole(2018)
RDA의 도입에 대한 인식	RDA 도입 문제 RDA 도입 저해요인	9 9	Sanchez(2010); Mansor & Ramdzan(2014); Aboyade & Eluwole(2018)
RDA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RDA 교육 내용 RDA 교육 관련 의견*	7	Mansor & Ramdzan(2014)

* RDA 교육 관련 의견을 기술하도록 함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RDA에 대한 긍정 감정' 척도 .899, 'RDA에 대한 부정 감정' 척도 .874, 'RDA 원리나 개념 친숙도' 척도 .949, 'RDA 원리나 개념 이해' 척도 .923, 'RDA의 도입' 척도 .885, 'RDA 도입 저해 요인' 척도 .923, 'RDA 교육 내용' 척도 .947로 나타나, 모든 척도에서 Cronbach's $\alpha > 0.6$ 이상이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응답자의 RDA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면담 조사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서양서 정리업무 현황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76명 중 남자 사서는 16명(21.1%), 여자 사서는 60명(78.9%)이다. 정리업무 근무연수는 5년 미만 40명(52.6%), 5년 이상 36명(47.4%)이다. 직급은 8-9급 22명(28.9%), 6-7급 29명(38.2%), 5급이상 15명(19.7%), 기타 10명(13.2%)이다.

최종학력은 학사 49명(64.5%), 석사 재학 이상 27명(35.5%)이다. 고용된 형태는 정규직 63명(82.9%), 계약직 11명(14.5%), 무기계약직 2명(2.6%)이다. 소속 대학의 유형은 국공립대학 25명(32.9%), 사립대학 51명(67.1%)이다. 대학 규모는 재학생 1만명 미만 31명(40.8%), 1만명 이상 45명(59.2%)이다.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 27명(35.5%), 강원권 3명(3.9%), 충청권 20명(26.3%), 경상권 14명(18.4%), 전라권 11명(14.5%), 제주권 1명(1.3%)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소속 도서관이 사용하는 서양서 목록규칙은 KCR3 2개관(2.6%), KCR4 8개관(10.5%), AACR2 64개관(84.2%), 기타 2개관(2.6%)이다. 기타 1개 기관은 부분적으로 RDA를 적용한 경우이다. 사용하는 포맷은 KORMARC(통합서지용) 11개관(14.5%), KORMARC(단행본용) 2개관(2.6%), MARC21 57개관(75.0%), USMARC 5개관(6.6%), 기타 1개관(1.3%)이다. 서양서 편목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기관 20개관(26.3%), 아웃소싱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56개관(73.7%)이다. RDA 도입 계획은 이미 도입한 기관 1개관(1.3%), RDA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기관 7개관(9.2%), RDA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60개관(78.9%), 기타 8개관(10.5%)이다. 기타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4.2 RDA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설문에 참여한 76명의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RDA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를 질문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67.1%(51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N(%)	계(%)
성별	남성	16(21.1)	76(100)
	여성	60(78.9)	
정리업무 근무연수	5년 미만	40(52.6)	76(100)
	5년 이상	36(47.4)	
직급	8-9급(직원)	22(28.9)	76(100)
	6-7급(계장주임)	29(38.2)	
	5급이상(과장 이상)	15(19.7)	
	기타	10(13.2)	
최종 학력	학사	49(64.5)	76(100)
	석사 재학 이상	27(35.5)	
고용 형태	정규직	63(82.9)	76(100)
	계약직	11(14.5)	
	무기계약직	2(2.6)	
소속 대학 유형	국립대학	25(32.9)	76(100)
	사립대학	51(67.1)	
소속 대학 규모	1만명 미만	31(40.8)	76(100)
	1만명 이상	45(59.2)	
소속 대학 소재지	수도권	27(35.5)	76(100)
	강원권	3(3.9)	
	충청권	20(26.3)	
	경상권	14(18.4)	
	전라권	11(14.5)	
	제주권	1(1.3)	

〈표 4〉 응답자 소속 도서관의 서양서 목록 현황

구분		N(%)	계(%)
서양서의 목록 규칙	KCR3	2(2.6)	76(100)
	KCR4	8(10.5)	
	AACR2	64(84.2)	
	기타	2(2.6)	
서양서의 포맷	KORMARC(통합서지용)	11(14.5)	76(100)
	KORMARC(단행본용)	2(2.6)	
	MARC21	57(75.0)	
	USMARC	5(6.6)	
	기타	1(1.3)	
아웃소싱 여부	예	20(26.3)	76(100)
	아니오	56(73.7)	
RDA 도입 계획	이미 도입하였다	1(1.3)	76(100)
	RDA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7(9.2)	
	RDA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60(78.9)	
	기타	8(10.5)	

〈표 5〉 RDA의 인지 여부와 인지경로

구분		N(%)	계(%)
인지 여부	예	51(67.1)	76(100)
	아니오	25(32.9)	
인지 경로	웹사이트	5(9.8)	51(100)
	워크숍	13(25.5)	
	회의	2(3.9)	
	학술 저널	2(3.9)	
	학교 수업	26(51.0)	
	동료	1(2.0)	
	기타	2(3.9)	

명)는 RD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32.9% (25명)는 RD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RDA에 대해 들어본 5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처음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수업 51.0%(26명), 워크숍 25.5%(13명), 웹사이트 9.8%(5명), 회의와 학술 저널 각각 3.9%(2명), 동료 2.0%(1명), 기타 3.9%(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에 응답한 응답자는 시험 준비시(전공과목 학습)라고 응답하였다.

2013년 전국적인 심포지엄과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RDA를 기반으로 한 KCR 4판 개정 경과를 보고했음에도, 설문 결과 67.1%의 사서만이 RDA를 들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사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RDA는 세미나나 전국도서관대회 때 여러 차례 소개를 한 바가 있거든요 ... 전국도서관대회 때마다 목록위원회에서 한 쪽지를 담당하면서 계속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분과별로 참석해서 충분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시더라고요. 관심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차적으로 들고요. (3번 연구 참여자)

4.3 RDA에 대한 인식

4.3.1 RDA에 대한 감정

RDA에 대한 감정을 조사한 결과, 사서들의 인식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M=3.62$, $SD=.760$). 하위문항 중 'RDA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M=3.79$, $SD=.914$), 'RDA에 친숙하게 되면 RDA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M=3.78$, $SD=.842$), 'RDA가 궁금하다'($M=3.74$, $SD=.900$), 'RDA에 관심이 있다'($M=3.45$, $SD=.972$), 'RDA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M=3.33$, $SD=.870$)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부정적인 감정의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2.75$, $SD=.852$). 하위문항 중 'RDA에 대해 불확실하다'($M=3.08$, $SD=1.017$), 'RDA가 걱정된다'($M=2.80$, $SD=1.108$)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의 결과가 두렵다'($M=$

〈표 6〉 RDA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N=76)

구분	M	SD
RDA가 궁금하다	3.74	.900
RDA에 친숙하게 되면 RDA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3.78	.842
RDA에 관심이 있다	3.45	.972
RDA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9	.914
RDA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3.33	.870
전체	3.62	.760

〈표 7〉 RD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N=76)

구분	M	SD
RDA의 결과가 두렵다	2.62	.923
RDA를 신뢰하기 힘들다	2.50	.945
RDA가 걱정된다	2.80	1.108
RDA에 대해 불확실하다	3.08	1.017
전체	2.75	.852

2.62, SD=.923), 'RDA를 신뢰하기 힘들다'(M=2.50, SD=.945)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4.3.2 RDA 원리나 개념의 친숙 정도

RD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서 51명을 대상으로 RDA 원리나 개념의 친숙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2.53, SD=.826). 하위문항의 조사 결과, 'FRBR'(M=2.78, SD=1.119), 'FRBR 이용자 과업: 탐색, 식별, 선정, 획득'(M=2.75, SD=1.074), 'RDA 개체, 속성, 관계'(M=2.69, SD=.969), 'ICP'(M=2.53, SD=.966), 'GMD를 RDA에서는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으로 변경'(M=2.43, SD=1.005), 'FRAD'(M=2.41, SD=1.043), 'RDA 개발과정'(M=2.41, SD=.898), 'RDA 개관'(M=2.41, SD=.920), 'RDA 핵심 세트'(M=2.31, SD=

.787) 모두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표 8〉 참조).

4.3.3 RDA 원리나 개념 이해 정도

RD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서 51명을 대상으로 RDA 원리나 개념의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M=3.22, SD=.615). 하위문항 중 'RDA는 모든 유형의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규칙이다'(M=3.47, SD=.902), 'RDA는 AACR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M=3.45, SD=.945), 'RDA에서는 GMD를 사용하지 않는다'(M=3.39, SD=.940), 'FRBR 모델은 개체, 관계, 속성으로 구성된다'(M=3.35, SD=1.016)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FRBR은 RDA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M=3.29, SD=.965), 'FRBR 제1집단의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이다'(M=3.29, SD=.986), 'RDA는 표목 대

〈표 8〉 RDA 원리나 개념의 친숙도 수준(N=51)

구분	M	SD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FRBR)	2.78	1.11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FRAD)	2.41	1.043
The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ICP)	2.53	.966
FRBR 이용자 과업: 탐색, 식별, 선정, 획득	2.75	1.074
RDA 개체, 속성, 관계	2.69	.969
RDA 개발과정	2.41	.898
RDA 개관	2.41	.920
RDA 핵심 세트	2.31	.787
GMD를 RDA에서는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으로 변경	2.43	1.005
전체	2.53	.826

〈표 9〉 RDA 원리나 개념의 이해 수준(N=51)

구분	M	SD
RDA는 모든 유형의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규칙이다	3.47	.902
RDA는 AACR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3.45	.945
FRBR은 RDA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3.29	.965
FRBR 모델은 개체, 관계, 속성으로 구성된다	3.35	1.016
FRBR 제1집단의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이다	3.29	.986
FRAD는 전거 통제를 위한 개체-관계 모델을 제공한다	2.98	.969
RDA는 표목 대신 전거형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14	1.000
RDA에서는 GMD를 사용하지 않는다	3.39	.940
RDA 데이터는 MARC 21과 DC를 사용하여 인코딩될 수 있다	2.63	.871
전체	3.22	.615

신 전거형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M=3.14, SD=1.000), 'FRAD는 전거 통제를 위한 개체-관계 모델을 제공한다'(M=2.98, SD=.969)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 데이터는 MARC 21과 DC를 사용하여 인코딩될 수 있다'(M=2.63, SD=.871)는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표 9〉 참조).

RDA에 대한 감정과 친숙 정도, 이해 정도에 대한 사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RDA에 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자체도 '구현형'이나 '표현형'이니 하는 것이 아직도 생소하고 어렵지만 합니다.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2번 연구참여자)

4.4 RDA 도입과 도입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4.4.1 RDA 도입에 대한 인식 정도

RDA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서 51명을 대상으로 RDA 도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M=3.60, SD=.614). 하위문항 중, 'RDA는 도서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3.82, SD=.842), 'RDA 요소에 따라 새로운 MARC 필드가 있을 것이다'(M=3.82, SD=.740)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의 도입은 훈련을 위한 교육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M=3.78, SD=.945), 'RDA Toolkit 구독은 도서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3.71, SD=.986), '사서는 RDA를 위해 새로운 목록규칙을 배워야 할 것이다'(M=3.69, SD=.860), 'RDA는 현재 목록 관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M=3.63, SD=.824), 'RDA는 목록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것이다'(M=3.49, SD=.834)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는 2010년 출판되었다'(M=3.24, SD=.815), 'RDA는 AACR2를 대체할 것이다'(M=3.20, SD=.775)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RDA 도입의 인식 수준 중 가장 하위 문항인 'RDA는 AACR2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관계를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사례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규칙으로써만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현실에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자료 자체도 사실은 관련성을 가지는 연관 저록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지만, 대부분 자료는 한 개로 그냥 끝나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다 기술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3번 연구참여자)

4.4.2 RDA 도입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답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RDA 도입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3.91, SD=.633). 하위문항 중 'RDA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M=4.33, SD=.737)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10〉 RDA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N=51)

구분	평균	표준편차
RDA는 AACR2를 대체할 것이다	3.20	.775
RDA는 2010년 출판되었다	3.24	.815
사서는 RDA를 위해 새로운 목록규칙을 배워야 할 것이다	3.69	.860
RDA는 현재 목록 관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3.63	.824
RDA 요소에 따라 새로운 MARC 필드가 있을 것이다	3.82	.740
RDA는 목록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것이다	3.49	.834
RDA는 도서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2	.842
RDA의 도입은 훈련을 위한 교육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3.78	.945
RDA Toolkit 구독은 도서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71	.986
전체	3.60	.614

〈표 11〉 RDA 도입의 저해요인 수준(N=76)

구분	M	SD
RDA Toolkit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3.87	.772
RDA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4.33	.737
RDA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07	.789
RDA에 대한 구체적인 로컬 규칙이 미비하다	3.87	.772
현재 ILS에 RDA를 반영하기 어렵다	3.58	.821
한국어로 번역된 RDA가 없다	3.64	.919
RDA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관련 커뮤니티가 없다	3.92	.845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없다	3.99	.808
미국에서와 같은 국내 RDA 테스트 과정이 없다	3.96	.756
전체	3.91	.633

(M=4.07, SD=.789),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없다’(M=3.99, SD=.808), ‘미국에서와 같은 국내 RDA 테스트 과정이 없다’(M=3.96, SD=.756), ‘RDA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관련 커뮤니티가 없다’(M=3.92, SD=.845), ‘RDA Toolkit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M=3.87, SD=.737), ‘RDA에 대한 구체적인 로컬 규칙이 미비하다’(M=3.87, SD=.772)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번역된 RDA가 없다’(M=3.64, SD=.919), ‘현재 ILS에 RDA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3.58, SD=.821)(〈표 11〉 참조).

RDA 도입의 저해요인에 대한 사서의 인식 정도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RDA 사용에 대한 교육의 부족) RDA 적용에 관해서는 정리부서 내에서의 교육도 딱히 없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KORMARC에만 치우치고 RDA는 소개 정도로만 그칩니다. 저는 RDA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RDA를 도입하는 도서

관이 거의 없다 보니 교육 수요가 많지 않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2번 연구참여자)

(미국에서와 같은 국내 RDA 테스트 과정의 부재) 현장에서는 일단 RDA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ARC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없고 교육과정도 없다시피 하구요, 그리고 현재 MARC 데이터를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과정이라도 있다면 한번 써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 ... 기회가 없어서 경험치가 전혀 없네요. (1번 연구참여자)

(RDA Toolkit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 RDA Toolkit까지 구입하기는 곤란하고, 여러모로 RDA는 복잡하고 불편한 규칙인 것 같아요. (2번 연구참여자)

(RDA에 대한 구체적인 로컬 규칙의 미비) 기관에서도 먼저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목록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기관에서 해야 할 일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3번 연구참여자)

(한국어로 번역된 RDA의 부재) RDA 번역서가 국중의 내부용으로만 보관하고 있고 배포를 하지 않았잖아요. 번역서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텐데,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정보가 없어서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 요약 정리된 책자를 배포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도 거기 참여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3번 연구참여자)

4.5 RDA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RDA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4.27, SD=.594). 하위문항 중, 'RDA Toolkit의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34, SD=.664), 'RDA 레코드 변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33, SD=.641), 'RDA와 AACR2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32, SD=.637), 'RDA와 MARC 21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30, SD=.654)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A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22, SD=.685), 'RDA와 자원 발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21, SD=.718), 'RDA의 배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M=4.20, SD=.766)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RDA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RDA와 AACR2의 차이에 대한 교육) RDA에 크게 변화된 부분이 전거형 접근점이라든지, 관계 부분에서 그거를 현재 규칙에 반영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RDA와 AACR2의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 위주로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 전거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변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영하는데 어려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인명이나 뭐 이런 거는 원어를 그대로 기술하는 그런 형태를

<표 12> RDA 교육 내용(N=76)

구분	M	표준편차
RDA의 배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20	.766
RDA Toolkit의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34	.664
RDA와 AACR2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32	.637
RDA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22	.685
RDA와 MARC 21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30	.654
RDA 레코드 변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33	.641
RDA와 자원 발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21	.718
전체	4.27	.594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한다든지 어떤 공론화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3번 연구참여자)

(RDA와 MARC 21에 대한 교육)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목록교육은 통합 KORMARC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사실 따로 MARC 21 교육을 받은 적이 없네요. LC나 OCLC의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게 전부였어요. 대부분의 도서관이 목록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현실에서 MARC 21 교육까지는 무리겠지요. 하지만 통합 KORMARC이 결국 MARC 21을 번역, 검토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만들어

졌음을 생각한다면 AACR2, MARC21 나아가 RDA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연구참여자)

(RDA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교육) 기존 MARC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오던 사서라면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Toolkit 사용에 대한 교육보다는 변경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고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배경이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연구참여자)

사서들은 RDA 교육에 대해 <표 13>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3> RDA 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 종합

<국외서 편목 규칙과 포맷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A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RDA 관련 교육을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접한 적이 없음 - 대부분의 목록 교육은 국내서 목록 위주이므로, 국외서 목록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사서교육시스템에 교육이 개설되면 좋겠음 - RDA 관련 교육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대학도서관 전반에 RDA를 도입하는 추세가 온다면 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해 보임 - 기존 교육을 받았던 사서들에게 RDA라는 단어는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함. 좀 더 적극적인 RDA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리 사서에게 목록 규칙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 - 기존의 편목 관련 사서 교육(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은 대부분 KORMARC, KCR4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등 다량의 서양서를 취급하는 도서관 사서를 위해 RDA, MARC21, AACR2 등 서양서 목록 규칙 및 편목 업무에 관한 사서 교육이 필요함 	
<RDA 관련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RDA가 무엇이고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함 - (필요성)RDA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필요성)RDA로 전환될 가능성과 RDA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어려운 점 - (기초)RDA 자체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함 - (특성)RDA의 특성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 (전거)전거교육 - (활용)RDA 활용 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음 - (시스템변경사항)RDA 도입 후 LAS와 웹사이트의 변경사항 - (시스템변경사항)RDA 도입시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접근점이 MARC21/AACR2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함 	

5. 논의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 정리 사서들은 RDA에 대해 67.1%가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서들의 인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 중 말레이시아 사서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Mansor와 Ramdzan(2014)의 95%, 나이지리아 사서를 조사한 Aboyade와 Eluwole(2018)의 94%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사서의 RDA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사서들은 학교 수업 51.0%, 워크숍 25.5%, 웹사이트 9.8%, 회의와 학술 저널 각각 3.9%, 동료 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RDA 인지 경로를 웹사이트, 워크숍 순으로(Mansor & Ramdzan, 2014), 학술 저널, 동료, 도서관협회 웹사이트 순으로(Aboyade & Eluwole, 2018) 조사된 결과와 다르다.

이런 결과는 국내에서 RDA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심포지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가 KCR4 개정 경과를 보고하면서 RDA를 소개하였지만, 이러한 심포지엄과 대회는 사서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야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마다 정리 사서의 수가 부족하고, 정리업무를 아웃소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포지엄과 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웠던 사서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은 사서들이 목록과 관련된 새로운 표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홍보 방식은

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은 RDA 관련 온라인 워크숍, 웹사이트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사서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DA에 대한 캐나다 사서들의 인식 재고를 위한 CCC(Canadian Committee on Cataloging) 활동, 예로 들어 CCC 회원은 캐나다 목록 커뮤니티에 RDA 개발, 변경 및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례(Oliver, 2009)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리 사서들은 새로운 목록 표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사서들이 인식하는 RDA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RDA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RDA에 친숙하게 되면 RDA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리라는 것, RDA가 궁금하고, RDA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였고, RDA의 결과가 두렵거나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은 보통보다 약간 낮게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던 연구와 비교하면, 국내 사서들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미국과 캐나다, 영국 정리 사서의 RDA에 대한 감정 조사 결과, 43%가 부정적인 감정이었고, 28%는 긍정적인 감정이었다는 선행연구(Sanchez, 2010)와 2013년 미국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의견 12건, 부정

적인 의견 27건으로 응답한 선행연구(Primary Research Group, 2013)가 있었다. 이런 연구는 RDA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시한 조사로서, Haliru와 Sokari, Bello(2016)가 지적하였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서들의 RD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국내 사서의 RDA에 대한 감정은 걱정, 두려움, 비 신뢰보다는 인정, 기대의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서들이 보인 RDA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은 RDA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이에 RDA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서관협회는 RDA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사서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럼과 홍보,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서들의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서들은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사서들은 다른 문항에 비해서 RDA 핵심 세트, RDA 개관, RDA 개발과정, FRAD,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의 변경 순으로 더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사서들은 RDA의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다른 문항에 비해 RDA 데이터가 MARC 21과 DC를 사용하여 인코딩될 수 있는 것, RDA는 표목 대신 전거형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RAD는 전거 통제를 위한 개체-관계 모델을 제공하는 것 순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정리 사서는 RDA 및

FRBR의 기본 사항에만 익숙하다는 선행연구(Mansor & Ramdzan, 2014), 터키 도서관 사서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이 RDA 어휘 및 RDA 요소 집합과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Atilgan, Ozel, & Chakmak, 201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국내 연구에서도 발견된 사항으로서 RDA의 특징 중 하나인 자원유형의 이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RDA 자원유형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선행연구(이미화, 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사서들은 RDA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제시된 모든 문항의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다른 문항에 비해 RDA Toolkit의 사용, RDA 레코드 변경, RDA와 AACR2의 차이, RDA와 MARC 21의 순서로 교육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RDA 교육에 대한 목록 작성자의 요구와 선호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목록 작성자는 FRAD를 포함한 RDA 관련 내용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을 원한다는 선행연구(Mansor & Ramdzan, 201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사서들이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친숙하지 않고, 이해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서들이 RDA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고, 또한 RDA를 접하더라도 간단한 소개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사서들의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한 친숙도 수준과 이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RDA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프로

그램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RDA는 20여 년 동안 목록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FRBR과 FRAD의 개념모형, ICP의 목록원칙, 탐색, 식별, 선정, 획득 등의 목록 기능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목록 표준이기 때문에, RDA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목록 표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RDA 교육은 RDA 자체에 대한 이해, RDA Toolkit의 사용, RDA 레코드 변경, RDA와 AACR2의 차이, RDA와 MARC 21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거 관련 업무가 전무한 국내 도서관의 실정을 반영하면, 전거에 대한 교육, FRAD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인코딩과 관련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서들의 RDA 도입과 도입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서들은 RDA 도입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문항 중 RDA가 도서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RDA 요소에 따라 새로운 MARC 필드가 추가되고, RDA의 도입은 훈련을 위한 교육 비용을 증가시키고, RDA Toolkit 구독은 도서관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서들은 문항 중 AACR2를 대체할 것이고, RDA가 2010년 출판되었다 순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리 사서가 RDA는 2010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목록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사서가 'RDA가 AACR2를 대체할 것'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RDA가 AACR2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Mansor & Ramdzan, 2014)는 선행연구와 다른 것으로 주목할만하다. 이는 면담을 통해 할 수 있듯이 RDA가 AACR2의 목록 규칙을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서들은 RDA 도입의 저해요인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RDA 도입의 저해요인으로 RDA 사용에 대한 교육의 부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RDA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없다는 것, 미국에서와 같은 국내 RDA 테스트 과정이 없다는 것, RDA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관련 커뮤니티가 없다는 것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RDA 관련 문헌 조사 결과, RDA 도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Yuji & Park, 2013), 협업의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강조한 선행연구(Ducheva & Pennington, 2019)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RDA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것이다. 이에 RDA 등 국외서 편목 규칙과 포맷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목록 규칙 도입이 정리 사서, 혹은 로컬도서관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협업을 위한 플랫폼,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관중별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록규칙 관련 TF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 동향의 관점에서 로컬 규

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로 된 RDA 번역본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번역본(2014년 업데이트본)을 보완하여, 도서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RDA가 발표된 이후 각국은 RD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RDA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통해 도입 여부와 효과적인 도입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RDA는 국제적으로 설계되었고, RDA의 도서관 도입 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RDA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RDA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도서관 정리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유효한 설문지 76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에서는 RDA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RDA에 대한 감정, 친숙도, 이해, 도입, 도입 저해요인,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의견은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첫째 67.1%의 사서가 RDA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인지 수단은 학교 수업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서들은 RDA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고,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RDA

자체와 FRAD에 대해 더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사서는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전거와 인코딩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사서들은 RDA 도입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지만, 문항 중 'RDA가 AACR2를 대체한다'는 것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사서는 RDA 도입의 저해요인을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RDA 관련 교육 부족을 높게 인식하였다. 넷째 사서들은 RDA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RDA Toolkit의 사용, RDA 레코드 변경, RDA와 AACR2의 차이, RDA와 MARC 21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RDA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RDA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관할 것과 도서관 관중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목록규칙 관련 TF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관들은 사서들이 RDA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목록 관련 새로운 표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사서들의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대한 친숙도 수준과 이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RDA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에는 RDA 자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거와 인코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RDA Toolkit의 사용, RDA 레코드 변경, RDA와 AACR2

의 차이, RDA와 MARC 21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용 중인 내부 직원용 번역본(2014년 업데이트본)을 보완하여, 도서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리 사서들이 새로운 표준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개방적 생각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RDA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RDA의 도입에 따른 이점이 확실해야만 RDA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RDA 도입 여부와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RDA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RDA 인식에 대한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달리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RDA 도입과 관련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RDA 도입과 관련된 저해요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사서의 의견을 반영한 RDA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진희 (2009). RDA의 제정동향 및 내용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317-338.
- 백지원 (2013). RDA 교육훈련 동향 분석 및 국내 적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379-403.
- 백지원 (2016). RDA 도입을 위한 정보조직 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03-428.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03>
- 윤정옥 (2018). 국제 도서관계의 RDA 활용 동향. 人文科學論集, 57, 49-72.
- 이경호, 김정현 (2016). 자료목록법. 대구: 태일사.
- 이미화 (2011).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03-12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103>
- 이미화 (2017). RDA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25-4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25>
- 이미화, 현문수 (2015). RDA 테스트 분석을 통해 본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155-176.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155>
- Aboyade, W. A. & Eluwole, O. A. (2018). Implementation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 (RDA) in nigeria: awareness, cataloguers' perception and challenges. *Journal of Applied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1(2), 79-86.
- Atilgan, D., Ozel, N., & Chakmak, T. (2015). RDA in turkey: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n implementation. *Ital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2), 163-179.
- Chong, L., Dandan, Z., & Dongfeng, Q. (2014). China's road to RD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2(6/7), 585-599. <https://doi.org/10.1080/01639374.2014.917446>
- Cronin, C. (2011). From testing to implementation: managing full-scale RDA adop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9(7/8), 626-646. <https://doi.org/10.1080/01639374.2011.616263>
- Ducheva D. P. & Pennington D. R. (2019).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in europe: implementations and perception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1(2), 387-402. <https://doi.org/10.1177/0961000617709060>
- Haliru, Z. A., Sokari, V., & Bello, S. O. (2016). Perceptions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a survey of librarians in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western Nigeria. *The Nigerian Cataloguer*, 3, 28-41.
- Mansor, Y. & Ramdzan, E. (2014). RDA perceptions among malaysian catalogers. *Library Review*, 63(3), 176-188. <https://doi.org/10.1108/LR-06-2013-0085>
- McCutcheon, S. (2011). RDA testing in triplicate: kent state university's experiences with RDA test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9(7/8), 607-625. <https://doi.org/10.1080/01639374.2011.616262>
- Mitchell, E. (2013). Is RDA ready? an analysis of case studies on RDA testing.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30(1), 70-82. <https://doi.org/10.1080/07317131.2013.735958>
- Oliver, C. (2009). FRBR and RDA: Advances in Resource Description for Multiple Format Resources. Available: <http://www.collectionscanada.gc.ca/obj/005002/f2/005002-2200-e.pdf>
- Oni, O., Oshiotse, J. O., & Abubakar, T. G. (2018). Cataloguers' awareness and perception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RDA) rules for cataloguing practice in some selected libraries in bauchi state of Nigeria. *Webology*, 15(1), 108-120.
- Pazooki, F., Zeinolabedini, M. H., & Arastoopoor, S. (2014). RDA implementation issues in the iranian national bibliography: an analysis of bibliographic record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2(6/7), 621-639. <https://doi.org/10.1080/01639374.2014.945022>
- Primary Research Group (2013). *The Survey of Academic Library Cataloging Practices*. 2013 Edition. New York: Primary Research Group.
- Sanchez, E. (2010). RDA, AACR2, and you: what cataloguers are thinking? *Staff Publications-*

- Library, 25. <http://ecommons.txstate.edu/libstaff/25>
- USA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Available:
http://www.loc.gov/aba/rda/rda_test_archives.html
- Young, J. B. & Bross, V. (2011). Results of the CRCC informal RDA testing task forc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9(7/8), 600-606. <https://doi.org/10.1080/01639374.2011.620223>
- Yuji, T. & Park, J. R. (2013).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4), 651-66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 W. (2013). Analysis of trends in RDA on-the-job training and its application model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379-403.
- Baek, J. W. (201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DA in LIS cataloging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03-428.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03>
- Lee, K. H. & Kim, J. H. (2016). *Introduction to Cataloging*. Daegu: Taeilsa.
- Lee, M. H. & Hyun, M. S. (2015). A study on testing the Korean cataloguing rules through analyzing the RDA te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155-176.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155>
- Lee, M. H. (2011).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03-12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103>
- Lee, M. H. (2017). A study on the plan for the display of RDA resource typ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25-4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25>
- Park, J. H. (2009). A study on movements to establish RDA and its contents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17-338.
- Yoon, C. O.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DA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community. *Journal of Humanities*, 57, 49-72.